

The photographer's 2



Urban Fiction 1



도시, 환상과 실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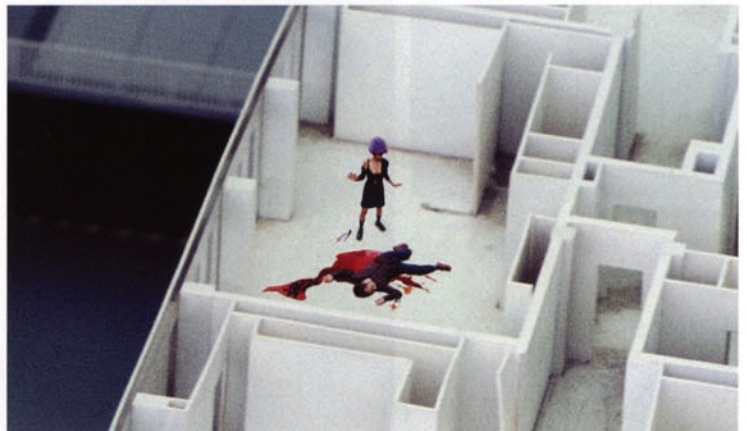
환상적인 도시와 도시인, 싱 단원

Xing Danwen

글 | 김보경객원기자(미국), 디자인 | 김윤정기자

1967년 중국 시안(Xian) 태생인 싱 단원(Xing Danwen)은 대학에서 회화를 공부하고 베이징의 중앙미술학원(Central Academy of Fine Arts)에서 1992년 학사(BFA) 과정을 마쳤다. 80년대 말에 우연히 사진을 접한 후 그녀는 사진으로 매체를 바꾸고,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뉴욕의 School of Visual Arts에서 석사(MFA) 과정을 마쳤다. 이후 단원의 작업은 사진이란 매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비디오, 음향, 설치 등 다양한 매체로 확장되었다. 단원은 수년간의 작업(Scroll, Sleep Walking, disCONNEXION, DUPLICATION, Urban Fiction, Wall house)을 통해 자신이 유년기부터 경험해왔던 도시화되어가는 현대인의 삶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고국인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도시화되는 현대의 삶의 모습은 흑과 백처럼 명확히 나눌 수 있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엔 현실과 이상, 전통과 모더니즘, 과거와 현재, 기억과 실재에 관한 끊임없는 질문이 이어진다.

80년대 서울 여의도에 처음 63빌딩이 세워졌을 때 이 빌딩은 현대화라는 꿈의 상징이자 증거물처럼 여겨졌었다. 당시 사람들은 그 높은 건물을 환상처럼 신기해했고, 63층이



Urban Fiction 1 Detail

란 어마어마한 높이에서 서울을 내려다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관광을 왔다. 63빌딩을 다녀간 사람들이 자랑하듯 이야기하던 모습은 어쩌면 현대화되기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 가진 모더니즘에 대한 동경이었으리라. 하늘을 찌를 듯 수직으로 세워진 고층 빌딩과 층층이 쌓아 올린 상자 같은 아파트는 언젠가부터 현대적 이미지의 대명사로 여겨져 왔다. 고층 건물이나 대단지 아파트가 흔치 않았던 시절, 사람들은 각종 편의시설이 구비된 최신팍 고층 건물과 자동차가 빼곡히 주차된 아파트를 신기하게 여기며, 대도시화된 환경에서 삶을 살기를 꿈꾸었던 적이 있었다. 아파트도 브랜드화 되어가는 시대에 현대화, 도시화는 너무나 일상화되어 더 이상 특이할 것도 없지만, 문득 돌아보면 이 일상화된 모습이 한때는 서양의 영화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이상향이었던 적도 있었다. 이제 도시의 아이들은 더 이상 흠투성이가 되어 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모르고 지내며, 친척들과 웬 기종기 모여 사는 삶의 모습은 볼 수 없는 풍경이 되었다. 대신 현대의 도시인들은 자신만의 공간과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여, 반듯한 상자 같은 건물에서 누군지 모르는 타인과 얇은 벽을 사이에 두고 살고 있다. 누군가를 만나려면 자동차를 타고 20~30분을 가는 것이 당연시 되는 세상이다.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모습의 라이프스타일에는 넓게 닦여진 도로와 자동차(또는 교통수단)로 인해 줄어든 거리감과 시간감에서 기인했음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결국 현대인들은 새로운 생활방식을 바탕으로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현대화, 대도시화 되어가는 삶의 모습에 대한 지향은 우리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개발도상국의 어느 도시든 동일한 경험을 지닌다. 싱 단원의 고국인 중국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쳤으며, 작가는 자신의 유년기부터 경험했던 사회적 변화를 작품을 통해 현실과 환상의 경계선에서 즐타기하듯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그녀가 소녀였을 때 상상하던 삶을 지금 현실에서 살고 있지만, 상상처럼 현실이 달콤하기만 한 것일까? 편리함의 가치가 주가 되는 이



Urban Fiction 3 Detail



Urban Fiction 3



Urban Fiction 5 Detail



Urban Fiction 5

시대에 단원은 끝없이 묻고 있다. 편리함 그리고 상상 속의 삶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는 무엇일까? 그녀의 작품은 도시인이라면 한번쯤은 생각 또는 경험해보았을 법한 드라마틱한 순간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고집어내 정지시킨다.

화가를 꿈꾸던 소녀, 사진가가 되다!

"Everything can change life"

인생에선 모든 것이(사소한 것도) 삶을 바꿀 수 있다.

엔지니어였던 단원의 부모는 그녀가 십대 소녀였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예술가 대신 건축가가 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우연히 이웃에 살던 건축과 교수가 건축에 관한 책을 보여주었을 때 단원은 이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인생에서 아주 사소한 일이 삶을 통째로 바꾸는 것처럼 만약 그때 그 건축과 교수가 책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건축으로 진로를 결정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인상주의 회화를 좋아했던 단원은 반 고흐의 삶과 같은, 막연하나마 로맨틱한 환상을 쫓아 예술가가 되기를 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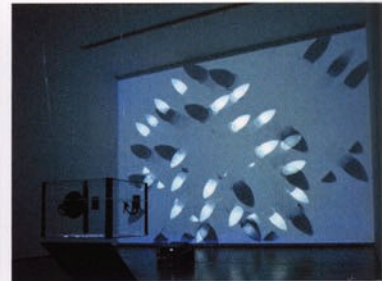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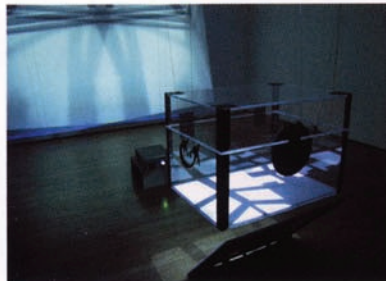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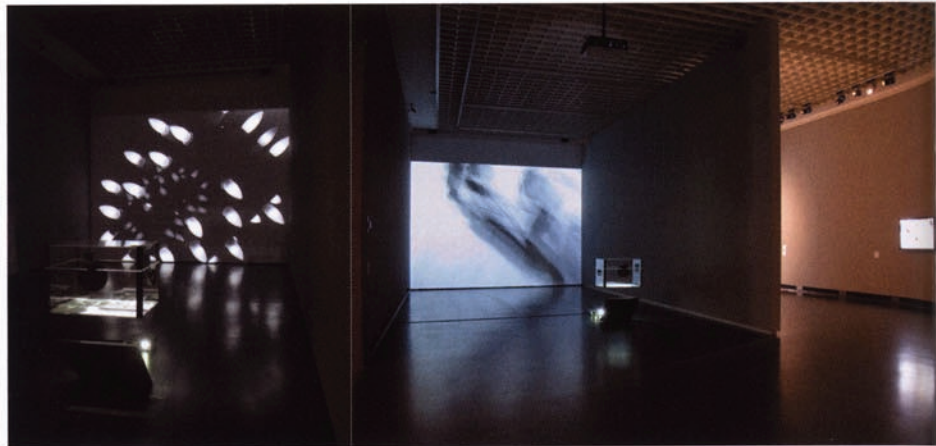
그러나 그녀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 중국에는 전통적 개념의 회화나 조각 정도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예술 분야였다. 그 즈음, 그녀는 우연히 한 사진잡지를 보게 되면서 직감적으로 흥미를 느꼈다. 그때 보았던 사진은 흑백의 와이드 앵글로 촬영된 어느 콘테스트의 입상작이었다. 그뒤 단원은 구할 수 있는 사진잡과 잡지를 모두 찾았으나 당시 중국에는 많아야 2~3종류의 사진잡지가 전부였다. 그녀가 다니던 학교의 도서관에도 다섯 권 정도의 사진집이 있을 뿐이었다. 이 책을 통해 단원이 접한 사진은 다큐멘터리사진이나 고전적인 거리 사진뿐이었으며, 이 때문에 더욱

사진에 대한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품게 되었다.

당시 중국에는 사진을 전문으로 다루는 교육과정도 없었으며, 단원은 6년 동안 독학으로 사진을 익혔다. 그리고 사진과 관련된 일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지만 전문적인 사진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그러다 93년부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외국잡지의 의뢰를 받아 사진 일을 시작해 나름대로 성공한 사진가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98년까지 엄청난 양의 일을 해내며 온실 속의 화초에서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가 세상을 경험하고 눈 뜨게 된다. 한편으론 마감시간에 쫓기고, 자신의 사진 옆에 붙여진 글 한 줄이 사진의 의도를 훼손시키는 잡지사의 생리에 회의를 느끼기도 한다.

Sleep Walking – 기억과 현실, 환상과 실재를 고민하다.

오랜 기간 잡지 일을 하면서 단원은 변화의 절박함과 예술가가 되고픈 욕망을 확인한다. 그래서 Asian Cultural Council(아시아문화원)의 장학금을 받아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뉴욕의 School of Visual Arts에서 석사 과정을 공부했다. 뉴욕에서의 생활은 무엇보다 뉴욕이라는 도시가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다. 베이징 역시 국제적인 대도시지만 어디까지나 중국화 된 도시로, 그곳에서 접할 수 있었던 문화와 예술은 모두 중국적인 색채가 강했다. 대부분의 주제가 중국이란 국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그러나 뉴욕에선 너무나 다양한 문화와 예술이 각자의 색채 그대로를 유지한 채 공존하고 있었다. 누군가 뉴욕은 진정한 의미의 미국이 아니라고 했던 것과 상통하는 맥락이다. 세계의 수많은 문화와 예술이 모이는 뉴욕이란 도시에서 영감을 얻은 단원은 자신에게 변화가 필요했던 최적의 시기에 최고의 장소에 와있음을 알 수 있었다.



Sleep Walking, Video installation

이 시기에 단원은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자신의 초기작에 해당하는 'Sleep Walking' (몽유, 2001)을 만들었다. 회화를 공부했던 단원은 유럽여행을 통해 그녀가 좋아했던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에서 보았던 파리의 모습을 기대했으나, 실제 파리는 그림에서 보았던 그것과 전혀 달랐다. 그녀는 낭만적이고 고풍스러운 파리와 현실의 파리 사이의 간극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과거의 모든 것은 기억으로 남아 때로는 생각하는 주체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가감되기도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과의 간극은 점점 커져 어느 순간 환상이 되기 마련이다. 실재하는 현재라고 믿는 이 시간도 계속해서 과거가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기억이고 어디까지가 현실인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환상이고 어디까지가 실재인지 그 경계는 불분명해진다. 단원은 파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멀티미디어 설치 작업인 Sleep Walking을 작업한다. 그녀가 생활하던 뉴욕을 비디오와 여러 장의 스틸사진으로 촬영해 프로젝터를 통해 스크린에 보여주고 동시에 중국 곳곳에서 녹음한 음향을 들려준다. 관객들은 시각적으로 뉴욕의 거리를 보면서 청각으로는 중국의 소리를 듣고 일치하지 않는 두 감각에 혼란스러워 하며, 어느 쪽이 더 사실에 가까운지 아니면 시각과 청각적 경험 모두가 환상에 불과한지 반문하게 된다.

Wall House - 현대인의 외로움을 말한다.

"We can be so close but at the same time so far away from each other physically and emotionally."
우리는 너무도 가까이 있지만, 동시에 물리적, 감정적으로 서로에게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다.



Wall House, Another Voice, Shanghai Art Museum, 2008



Wall House 1



Wall House 3



DUPLICATION



DUPLICATION



disCONNEXION



Wall House 2



Wall Hous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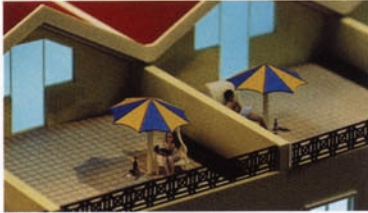
Wall House Video

2002년 유학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간 단원은 서양과 중국의 교류에서 빠뜨릴 수 없는 첨단기술과 현대화의 양면의 모습인 개발과 파괴, 이상과 현실에 초점을 맞춰 산업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촬영한 'disCONNEXION', 'DUPLICATION' 등의 작업을 완성한다.

또한 2007년 2월 단원은 네덜란드 홀랜드의 Wall House Foundation Residency Program의 초청을 받아 2주 동안 Wall House에서 혼자 생활하게 된다. Wall House는 건축가인 John Hejduk에 의해 설계된 건축물로, '벽의 집'이라는 이름처럼 한 공간을 가로질러 넓이 18미터, 높이 14미터의 벽이 놓여 있다. 이 벽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거실과 부엌, 침실이 있는 주거공간이고, 다른 한쪽은 작업 및 사무공간으로 나뉜다. 거주자는 항상 그가 있지 않은 다른 쪽의 공간과 분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건물의 내부에 있으면서도 이방인(외부인)처럼 느끼게 된다. Wall House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벽은 두 공간 모두에 고립감을 부여하는 셈이다.

단원은 이 건축물이 주는 심리적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작품에서 '도시인의 삶에 존재하는 외로움과 고립'을 표현했다. Wall House는 네 장의 사진과 하나의 애니메이션 비디오를 석고 벽의 양면에 전시한 설치작업이다. 1분 가량 지속되는 애니메이션에선 한 여성이 혼자 텅빈 하얀 공간을 배회하듯 서성인다. 네 장의 사진에는 각기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여성이 현대적인 생활환경 안에서 고독하고 공허하게 보인다. 사진의 배경이 되는 실내는 단원이

Wall House에 머물 때 촬영한 실제 Wall House의 내부다. 그러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외부는 중국의 대도시 풍경이다. 단원은 비어있는 Wall House 내부와 복잡해 보이는 중국의 도시를 합성해 극심한 대비를 주었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 공허한 현대인의 내면과 복잡한 도시 생활의 보이지 않는 관계에 관해 질문을 던진다. “나는 선택의 여지없이 혼자 살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외로움을 인정해야만 한다.”, “어떻게 사람들은 혼자 살아가는가?”, “당신만이 당신 자신의 유일한 동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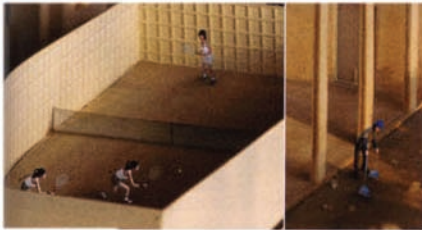
Urban Fiction 4 Detail

Urban Fiction - 대도시 속 현대인의 삶을 재현하다.

2004년부터 시작되어 2009년 현재까지 계속되는 작업인 'Urban Fiction'은 단원이 세계의 도시들을 여행하며 보아온 도시들의 유사함에서 시작되었다. 작가는 세계 어느 도시이건 세계화에 맞춰 개발된 도시의 모습과 도시인의 삶의 모습이 너무도 비슷해 그 경계가 흐릿해짐을 느꼈다. 자신의 주



Urban Fiction 4



Urban Fiction 11 Detail



Urban Fiction 11

된 관심사이기도 한 도시화를 표현하는 적절한 방식을 찾던 차에 유럽을 여행하면서 실사가 아닌 모조 풍경을 통해 실제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Urban Fiction 시리즈는 대부분 200x170cm 이상의 대형 라이트젯 C-프린트물로서, 실제 건축 모형과 작가 자신의 연출 사진을 합성해 완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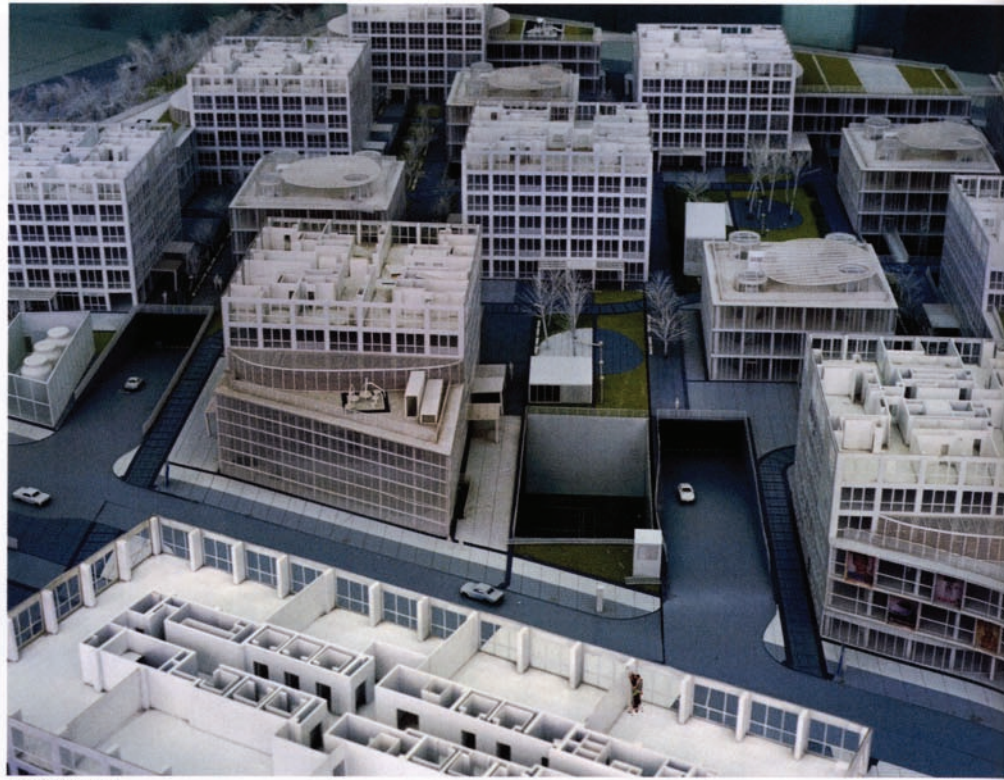
Urban Fiction에서 사용된 건축 모형들은 이미 중국에 건설되었거나 건설 예정인 실제 모형들이다. 초기에는 작가가 직접 모형을 만들기도 했지만 여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작가가 직접 만든 모형에는 작가 자신의 기호와 환상이 가미될 수밖에 없지만 실제 건축 모형은 그야말로 실재이다. 덧붙여 이미 만들어진 건축 모형이 리얼리티를 대변(건축 모형은 실제 건물의 미니어처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이다)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허구(fiction)와 실제(reality), 환상과 진실에 대한 개념과도 상통한다.

실제로 존재하는 건축 모형은 소비자에게 미니어처인 가짜(fake)를 통해 실제(reality)를 경험하고 꿈꾸게 한다. 건축 회사들은 최대한 구매자의 욕망과 부합하는 환상과 꿈을 느낄 수 있게 미니어처 모형을 제작한다. 이때 각각의 건축 프로젝트와 어울리는 이름을 붙여 이름만 들어도 특정한 환상을 갖게 만든다. 이를테면 SOHO, 맨하튼 가든, 오스트레일리아 콘도, IT 유토피아 식이다. 이러한 이름을 통해 서구화되기 이전의 중국인들은 영화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뉴욕커의 삶,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사는 호주의 삶, 서구화와 자동화가 주를 이루는 삶에 관해 상상하며 이러한 환경에서 살기를 갈망한다.

70~80년대 중국의 격변기 때 유년기를 보낸 단원은 Urban Fiction에서 보여지는 모형이 자신을 비롯해 같은 시대



Urban Fiction 13 Detail



Urban Fiction 13

를 산 사람들이 꿈꾸었던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 당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같은 푸른색의 유니폼을 입고 정해진 일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뿐이었다. '섹시하다'와 같은 개인의 개성이나 삶에 대한 표현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특히 단원이 태어난 시안이란 도시는 베이징보다 훨씬 더 전통적인 색채가 강한 지방 도시였다.

단원은 Urban Fiction 제작을 위해 실제 여러 건축 소품을 방문했다. 사람들은 좀더 넓고, 호화롭고, 환상적인 소품을 통해 자신들의 밝은 미래를 꿈꾸고, 더 나은 거주 환경이 더 많은 행복과 기쁨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단원은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꿈꾸던 환경에서 거주하며, 오히려 더 깊은 고독과 외로움을 느낀다고 말한다. 단원은 이러한 현대인들의 삶을 자신을 주인공으로 건축 모형 안에서 존재시킨다. 비록 단원 자신이 여러 다른 인물로 분하여 나타나지만 이 인물들은 작가의 정체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 어떤 누구도 될 수 있다.

Urban Fiction 시리즈의 깨끗하고, 화려하고, 넓고, 텅빈 이상향 같은 도시 안에는 주로 그녀 혼자이거나 많아야 두세 명의 사람이 있을 뿐이다. 단원은 이 인물을 통해 가상이지만 실제로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펼쳐 보인다. 이 가상의 인물들은 자신이 유년기에 꿈꾸던 환경에서 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같이 고독하고, 외롭고, 당혹스러운 삶을 산다. 자동차 사고가 났으나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이 말끔하게 정리된 도시, 적막한 도시에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당혹스러워 하는 여성, 고급 빌라의 테라스에서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채 각자의 일을 하는 남녀, 남편의 귀가에 외도한 남자를 빼돌리는 저택의 여성 등은 모두 꿈꾸던 이상향의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의 결말이 해피엔딩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들의 삶은 호화로운 환경이 선사할 듯 보였던 행복과 기쁨이 아닌 농도 짙은 고독이며 외로움이며, 공허함을 잊기 위한 끊임없는 갈망인 듯하다.



Urban Fiction 23 Detail



Urban Fiction 23

단원이 보여주는 도시인의 모습은 환경의 변화가 현대 도시인들에게 미치는 가치의 변화에 근거한다. 경제적으로 윤택해질수록 사람들은 시골보다 대도시에 거주하기를 원하고,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의 개념이 변화되고, 독신 생활자들이 늘며, 좀더 나은 발전된 삶의 형태를 찾는다. 부유한 사람들은 점점 더 큰 자신만의 공간을 찾거나 별장과 같은 도시의 외곽지역으로 거주지를 바꾼다.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편리한 개개인의 생활이 점점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간다. 새로움이 낡음을 대체하며, 도시인들은 오래된 것에 대해 망각해간다. 편리하지만 밀집한 도시의 환경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는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는 원하던 무언가를 소유했다고 믿으며 실제로는 소중한 무언가를 잃고 사는 것은 아닐까? 오래된 환상이 제공할 것만 같았던 행복과 기쁨이 진정 우리에게 머무는 것일까?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허구일까? 단원은 수많은 형태의 작업을 통해 본질적으로 같은 질문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다. □MP

Xing Danwen

Selected Solo Exhibition

- 2009** A Round Trip(Galerie Sollertis, Toulouse, France)
- 2008** The City Fairy(Korea Art Center, Busan, Korea)
- Wall House(project space at Gallery Barry Keldoulis, Sydney, Australia)
- 2006** disCONNEXION/duplication(Chinese Museum, Melbourne, Australia)
- Urban Fiction(TPW, Toronto, Canada)

Selected Group Exhibition

- 2009** Up Close Far Away(Heidelberger Kunstverein, Germany)
- imPOSSIBLE(San Francisco Arts Commission and MISSION17, San Francisco, USA)
- Action-Camera: Beijing Performance Photography(Morris and Helen Belkin Art Gallery, Vancouver, Canada)
- 2008** Strategies for Concealing(C-Space, Beijing, China)
- New World Order(Groninger Museum, the Netherlands)
- Another Voice(Shanghai Art Museum, Shanghai, China)
- China Design Now(Victoria and Albert Museum, London, UK)
- Floating(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 2007** Thought Provoking, Sense Provoking(Noorderlicht, Groningen, The Netherlands)
- METAMORPHOSIS(Tampere Art Museum, Tampere, Finland)
- MADE IN CHINA(Louisiana Museum of Modern Art, Denmark/The

- Israel Museum, Jerusalem, Israel)
- 2006** Fantasy Landscapes(Asia House, London, UK)
- MADE IN CHINA(Museum of Contemporary Photography, Chicago, USA)

Public Collection

-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New York
- JGS Foundation, New York
- ICP, International Center for Photography, New York
- the Smart Museum of Art, Chicago
- 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 USA
- Dr. Sigg Collection, Switzerland
- George Pompidou Center, Paris
- FNAC / Fonds National d'art Contemporain, France
- Victoria and Albert Museum, London 외 다수

Grant / Award

- 2008** Finalists for ING REAL photography award, the Netherlands
- 2003** Best Publishing Project Award from Les Rencontres d'Arles Festival, France
- 1998-2001** Grant & Fellowship from Asian Cultural Council, USA